

◆ 07년 9월 고2 35~37번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학 연구에서 말소리 분석의 기초적인 단위로 삼는 것이 음성과 음운이다.

음성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성대를 거쳐 입 안이나 콧속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와 방식에 따라 다양한 음성적 자질이 나타나게 된다. 물리적으로 볼 때, 음성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의 음성이라도 말할 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음운은 의미를 변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언어 사용자들이 음성 중에서 해당 언어의 의미 구별에 필요한 것만을 뽑아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음운이다. 그러므로 음운은 의미의 구별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에서 /ㄷ/와 /ㅌ/는 별개의 음운인데, 국어 화자가 이러한 차이를 모른다면, ‘발이 아프다’와 ‘팔이 아프다’를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양한 음성적 자질은 각 언어의 음운 체계에 선택적으로 반영된다. 가령, 영어 사용자는 한국인이 발음하는 ㉠ [바자]의 /ㄷ/를 무성음 /p/로 인식하고 ㉡ [자바]의 /ㄷ/는 유성음 /b/로 인식하지만, 대개의 국어 화자는 두 /ㄷ/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는 국어 음운 체계에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라는 음성적 자질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어 화자는 /ㄷ/과 /ㅌ/, /ㅌ/와 /ㅍ/의 차이를 쉽게 알아차리지만 영어권 화자는 대개 /ㄷ/과 /ㅌ/, /ㅌ/와 /ㅍ/를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 영어의 음운 체계에 그러한 음의 대립을 유발하는 음성적 자질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언어마다 음운 체계에 반영되는 음성적 자질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언어에서 사용되는 음운에도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음운은 주로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굴, 돌, 물, 불, 술’을 보자. 이들은 첫소리에 쓰인 자음이 어떤 음이냐에 따라 다른 의미의 단어가 된다. 이처럼 의미를 구별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ㄱ/, /ㄴ/, /ㄷ/, /ㄹ/, /ㄱ/, /ㄴ/ 등의 자음은 국어의 음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발, 벌, 불, 불’은 어떤가? 이것들은 가운데소리로 쓰인 모음이 어떤 음이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ㅏ/, /ㅑ/, /ㅓ/, /ㅕ/ 등의 모음도 역시 의미 차이를 유발하는 국어의 음운에 속한다. 단어나 음절 등에서 자음과 모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음되는데, 이들을 분절음, 또는 음소(音素)라고 한다.

한편 ‘소리의 길이, 높이, 강약’ 등도 의미 구별에 기여하는 음운에 해당한다. ‘하늘에서 눈이 온다’고 할 때의 ‘눈’은 긴 소리 [눈:]으로 발음이 되고, ‘눈이 따갑고 아프다’고 할 때의 ‘눈’은 짧은 소리로 발음되는 것이 그 예이다. 소리의 길이와 짧음은 문자로 적히지 않지만 그것 역시 말소리의 한 종류임은 틀림없다. 소리의 ‘높이’와 ‘강약’도 마찬가지이다. ‘소리의 길이, 높이, 강약’ 등은 자음과 모음에 얹혀 나타나는데, 이들을 초분절음, 또는 운소(韻素)라고 한다. 음운은 이러한 음소와 운소를 합친 개념인 것이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언어학에서 음성과 음운은 말소리 분석의 기초적 단위이다.
- ㉡ 음성은 머릿속에 존재하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다.
- ㉢ 음운 체계에 반영되는 음성적 자질은 언어마다 다르다.
- ㉣ 대부분의 언어에서 음운은 주로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 ㉤ 소리의 길이, 높이, 강약 등도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이 있다.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음성은 서로 다르나 국어 화자에게는 같은 음운으로 인식된다.
- ㉡ 음성은 서로 다르나 영어 화자에게는 같은 음운으로 인식된다.
- ㉢ 음성이 서로 같으나 국어 화자에게는 다른 음운으로 인식된다.
- ㉣ 음성이 서로 같으나 영어 화자에게는 다른 음운으로 인식된다.
- ㉤ 음성도 서로 같고 국어와 영어의 화자 모두에게 같은 음운으로 인식된다.

37. 위 글을 읽고 <보기>의 대화를 대상으로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논의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상황 1> 첫눈이 오는 날 아이와 엄마의 대화  
아이 : 와! [눈] 내린다.  
엄마 :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해야지.
- <상황 2> 남자가 여자에게 게 요리를 먹자고 제안함  
남자 : 우리 [개:] 요리 먹으러 갈까요?  
여자 : [개:] 요리인가요? [개:] 요리인가요?  
남자 : 바다에 사는 [개:]요.

- ㉠ <상황 1>에서 [눈:]에는 ‘소리의 길이’라는 운소가 얹혀 있다.
- ㉡ <상황 1>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말소리는 문자로 적히지 않는다.
- ㉢ <상황 2>에서 남자의 [개:]에는 ‘음소’와 ‘운소’의 요소가 모두 들어 있다.
- ㉣ <상황 2>에서 ‘여자’는 [개:]와 [개:]의 음운상 차이를 모르고 있다.
- ㉤ <상황 1>의 ‘아이’는 ‘운소’의 실현에 문제가 있고, <상황 2>의 ‘남자’는 ‘음소’의 실현에 문제가 있다.

## [44 47]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 가

(字形)

가

,

가 ‘ㄱ, ㅋ’ ‘ㄷ, ㅌ’ 가 ‘ㄴ, ㄹ’

,

가

가

가

[ ‘印度, 伊太利’ ]

가

가 ,

가

가

가

가

		( )
		( ㄱ )
	( ㄴ )	( ㄷ )

7                      L                      C

\_\_\_\_\_ ? [ 3 ] \_\_\_\_\_

<                      >

가?

?

가

?

가

?

가?

..... ‘ㄱ’, ‘ㄷ’ ‘ㅈ’ ..... , ‘ㄱ’

..... ‘ㄱ’ ‘ㅋ’ .....

..... 가 .....

..... , , ..... 가 ‘

..... ‘木’ ‘林’, ‘日’ ‘目’ ..... , 가 .....

..... 가? .....

47. < > , '[ ]'

. ? [1 ]

<

>

가 .

•

•

- - △

-

× × ×

× × ×

× × ×

◆ 08년 4월 고3 43~46번

[43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언어는 말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이 입으로 발화하는 말소리는 자연계의 소리나 기계의 소리와는 다른 점이 있다.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음과 모음을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자음과 모음은 서로 깊은 상관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현대 국어에서 ‘뚫다, 뚫다’와 같은 말을 활용하면, 즉 어간에 ‘-어/아’를 붙이면 각각 ‘도와, 더워’와 같이 된다. 한국어로 강아지 짖는 소리는 ‘멍멍’인데 이 말은 ‘멍+멍’이다. 영어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bow’를 두 번 써서 나타낸다. 그렇다면 ‘bowbow’가 되어야 할 텐데 실제로는 ‘bowwow’이다. ‘b’가 우리말의 ‘우’와 비슷한 ‘w’로 바뀌었다. 영어에서 이가 흔들리는 것을 ‘wobble’과 같은 말로 표현하는데, 젓나가 빠질 때의 영어권 아이들은 그것을 종종 ‘bobble’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는 ‘w’가 ‘b’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예는 한국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입술소리가 ‘t’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들 자음이 ‘t’와 같은 구성 원소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t’와 같은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뀐다면 그것은 ‘우[w]’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우리말에 구개음화라는 것이 있다. ‘굳이, 같이’ 등과 같은 말의 발음이 [ㄷ]이나 [ㄷɪ]으로 발음되지 않고 [ㄱ]이나 [ㄱɪ]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런 구개음화는 항상 ‘ㅣ’ 모음이나 ‘ㅑ’나 ‘ㅓ’와 같이 ‘ㅣ’ 모음이 포함된 ‘ㅣ’ 계열 이중 모음이 있을 때 ㉠ 일어난다. 즉, ‘굳어, 같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ㄷ]과 [ㄷɪ]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strike’와 같은 외래어나 외국어를 들을 때, ‘s’와 ‘t’ 사이, ‘t’와 ‘k’ 사이, 그리고 마지막 ‘k’ 다음에 마치 ‘ㅡ’가 있는 것처럼 들리거나, 한글로 표기할 때 ‘스트라이크’와 같이 ‘ㅡ’를 넣어서 쓴다. 이는 ‘ㅡ’ 모음은 음성학적인 면에서 아무런 특징을 가지지 않은 모음이기 때문이다. 즉, ‘ㅡ’는 마치 투명한 유리와 같아서 다른 색깔의 소리와 만나게 되면 자신은 사라지고 전적으로 다른 소리의 색깔을 그대로 비춰준다. 이런 이유로 ‘크(다), 뜨(다)’와 같이 ‘ㅡ’ 모음으로 끝난 말 다음에 ‘-아서/어서’와 같은 말이 결합하면 ‘커서, 떠서’ 등과 같이 발음된다. 그러나 ‘sponge, lunch’ 등과 같은 경우에는 ‘ㅡ’ 모음이 아닌 ‘ㅣ’ 모음을 사용하여 [스펀지], [런치] 등과 같이 발음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구개음과 ‘ㅣ’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것은 구개음 앞에 ‘ㅣ’라는 구성 원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구개음화의 경우에는 ‘ㄷ, ㅌ’이 ‘ㅣ’ 모음을 받아 들여 ‘ㅌ, ㅊ’으로 변하고, 외래어 발음의 경우에는 구개음 안에 들어 있는 ‘ㅣ’가 밖으로 나와 모음으로 실현된 것이다.

####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계의 소리와 인간의 말소리를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특정 음운이 변화하는 양상을 통해 자음과 모음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영어의 음운 현상이 한국어의 음운 규칙 설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인간의 말소리와 자연계의 소리를 분석하여 말소리의 보편적 특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⑤ 국어의 자음과 영어의 모음의 변화 양상이 유사함을 들어 두 언어의 음운 규칙이 유사함을 보여 주고 있다.

#### 44. 위 글의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 ㉠ ‘출다’가 활용될 때는 ‘출+어>추워’와 같이, 어간의 자음 ‘ㅌ’이 모음 ‘ㅌ’로 바뀐다.
- ㉡ ‘밭이’가 발음될 때는 ‘ㅣ’ 모음 때문에 ‘ㅌ’이 ‘ㅊ’으로 변하여 [바치]라고 발음된다.
- ㉢ ‘국물’이 [궁물]로 발음되는 것은 앞 음절의 받침 ‘ㄱ’이 뒤 음절의 첫소리 ‘ㄱ’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 ㉣ 우리말 ‘설+달, 술+가락’이 ‘섣달, 순가락’으로 바뀌고, 미국 영어에서 ‘water, city’를 [워터], [시리]와 같이 발음하는 것은 ‘ㄷ’과 ‘ㄹ’이 서로 넘나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45.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ㅡ’는 음성학적으로 아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 ② ‘모으다’를 활용할 때도 ‘ㅡ’가 탈락되는 현상이 생기겠구나.
- ③ 자음이 없이 모음 하나로도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가 있구나.
- ④ 언어의 공통된 특성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구나.
- ⑤ ‘교’도 ‘ㅣ’ 모음을 내포하고 있으니 ‘ㅣ’ 계열 이중 모음이겠구나.

#### 46.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녀의 심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 ② 나는 아침 느지감치 일어나 밥 한 술을 떴다.
- ③ 막내아들의 성공으로 집안이 크게 일어났다.
- ④ 그는 열흘 동안이나 몸져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 ⑤ 우리는 분명히 멀쳐 일어나 적군에 대항하였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인 근대 국어에서 가장 현저한 음운 변화의 하나는 구개음화이다. 구개음화는 현재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이 되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원래 구개음화란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이 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국어사에서 구개음화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ㄷ, ㅌ, ㄸ’이나 ‘ㄱ, ㅋ, ㄲ’이 구개음인 ‘ㅈ, ㅊ, ㅊ’이 되고, 그 밖의 몇몇 자음이 같은 조건에서 구개음이 되는 현상을 모두 포괄한다.

구개음화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남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1824년에 나온 유희의 『언문지』에는 당시 사람들이 ‘다더’나 ‘타터’를 ‘자저’나 ‘차쳐’와 동일하게 발음하고 관서 지방 사람들만이 ‘턴(天)’과 ‘첸(千)’, ‘디(地)’와 ‘지(至)’를 구분하여 발음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평안 방언을 제외한 여러 방언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척되면서 ‘디, 다, 더, 도, 듀’와 ‘티, 타, 터, 토, 튜’ 등과 같은 결합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구개음화가 진척된 이후에 ‘디, 티’가 ‘디, 티’로 변하면서 이 형태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디, 티’가 구개음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 국어에서 나타난 ‘ㄷ, ㅌ’의 구개음화는 ‘ㅈ, ㅊ’이 구개음으로 변한 것을 전제로 한다. 중세 국어에서 ‘ㅈ, ㅊ’은 원래 치음이었는데, 이것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으로 변한 뒤에야 ‘ㄷ, ㅌ’ 등의 구개음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ㅈ, ㅊ’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만 구개음으로 변하다가 ‘ㅈ, ㅊ’을 모두 구개음으로 발음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존재해 왔던 ‘자, 저, 조, 주’와 ‘차, 처, 초, 주’의 변별적 차이가 사라진다. 이 때문에 19세기 문헌에서는 ‘자’와 ‘차’, ‘저’와 ‘처’ 등이 구분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구개음화는 이 밖에 ‘ㅣ’나 반모음 ‘ㅣ’ 앞에 오는 ‘ㅅ’이나 ‘ㄴ’ 등에서도 나타났다. 어두에서 모음 ‘ㅣ’나 반모음 ‘ㅣ’에 선행한 ‘ㄴ’의 탈락은 구개음화된 ‘ㄴ’을 어두에서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ㄴ’의 탈락 현상이 나타난 시기는 대략 18세기 후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문헌을 보면 ‘님금’이 ‘임금’으로 ‘니르다’가 ㉠ ‘이르다’로 표기된 예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19세기에 오면 이러한 어두에서의 ‘ㄴ’ 탈락이 일반화된다.

근대 국어에서 구개음화는 ‘ㄱ’과 ‘ㅇ’이 합쳐진 ‘ㄱ-ㅇ’에서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티다’가 ㉡ ‘치다’로 변한 것과 같이 그 형태가 바뀌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의 구개음화는 공식적으로 파악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 구개음화는 주로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 반모음 ‘ㅣ’: ‘ㅌ, ㅊ, ㅊ, ㅊ’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ㅌ, ㅊ, ㅊ, ㅊ’를 만드는 소리.

25. 위 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국어의 구개음화는 어떤 음운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가?
- ② 근대 국어에서 ‘ㅈ, ㅊ’의 구개음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근대 국어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지역적 분포는 어떠한가?
- ④ ‘ㅈ, ㅊ’의 구개음화와 ‘ㄷ, ㅌ’의 구개음화 중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났는가?
- ⑤ 현재 ‘ㄷ, ㅌ’의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디, 티’가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구개음화되어 나타나 있다.
- ② ㉠과 ㉡은 모두 모음 ‘ㅣ’의 영향으로 인해 구개음화된 자음이 탈락되었다.
- ③ ㉠과 ㉡은 모두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의 과정을 거쳐 그 형태가 바뀌었다.
- ④ ㉠은 형태소 경계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고, ㉡은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 ⑤ ㉠은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음운에서 구개음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례이고, ㉡은 일부의 음운에서만 특수하게 일어난 사례이다.

27.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더**(저) 네 아드론 어**덜**어늘(어질거늘) 내 아드리 비록 **ㅌ**  
**디**라도(말이라도) ..... 왕이 네 아드를 내**티**쇼셔(내치소서)

- 『월인석보』 중에서 -

㉡ 그디 살고 닉가 죽으면 **저** 조식을 키울 거슬 닉가 살고  
그디 죽어 **저**(저) 자식 **엇지**(어찌) 키잔 말고 익고 익고  
**모진** 목숨 ..... 어런 자식 **엇지**홀ㄴ(어찌할까)

- 『심청전』 중에서 -

\* ( ) 안에는 해당 단어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 현재의 표기 형태를 밝혀 준 것임.

- ① ㉠의 ‘더’와 ㉡의 ‘저’가 같은 단어이지만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보다 ㉡의 앞선 시대의 자료임을 알 수 있어.
- ② ㉠의 ‘더’, ‘덜’, ‘디’, ‘티’에서 ‘ㄷ’과 ‘ㅌ’이 ‘ㅣ’나 반모음 ‘ㅣ’ 앞에 오는 것으로 보아, 이 음절의 초성 ‘ㄷ’과 ‘ㅌ’이 당시에는 구개음이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의 ‘저’, ‘지’, ‘진’에서 ‘ㅣ’나 반모음 ‘ㅣ’ 앞에 ‘ㄷ’이 나타나지 않고 ‘ㅈ’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은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척된 후의 자료로 추정할 수 있어.
- ④ ㉠의 ‘저’와 ‘저’는 같은 단어인데 그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ㅈ’을 구개음으로 발음하게 되면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 사례로 볼 수 있어.
- ⑤ ㉠의 ‘어덜어늘’과 ㉡의 ‘모진’이 현재 ‘어질다’, ‘모질다’라는 기본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아, 근대 국어에 나타난 구개음화 현상이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군.

◆ 10 수능 30~31번

[30~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학에서 변별적 자질은 두 대상이 어떤 특성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용한 개념이다. 이것은 본래 음운을 변별하는 데 필요한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어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변별적 자질은 [+F]나 [-F]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는데, 이때 'F'는 음성적 특성음, '+/-'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 없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두 음운 /ㅁ/과 /ㅂ/은 두 입술로([양순성])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기가 코를 통과한다는([비음성])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므로 /ㅁ/은 [+양순성, +비음성], /ㅂ/은 [+양순성, -비음성]이라는 변별적 자질들의 묶음으로 표시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C 앞에서 B가 되는 형식(A→B/\_\_\_C)의 음운 동화 현상에서 ㉠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 ㉡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 ㉢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은 각각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더 나아가 ㉣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과 적용받은 후의 음, ㉤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과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도 각각 또 다른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이때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들)로 표시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은 일반적으로 +나 -의 양분적인 값을 가지므로, 말소리가 인간의 기억 속에서 범주적인 양상으로 지각되거나 저장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또한 이러한 양분적인 값의 사용은 한 개의 자질을 선택함으로써 동시에 두 개의 정보를 알려 주는 효과, 즉 상호 예측성을 지니므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별적 자질을 통해 우리는 음운과 음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음운 간의 대립은 변별적 자질보다는 음성적 특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 ②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변별적 자질을 알면 해당 음운의 모든 음성적 특성을 알 수 있다.
- ④ 어떤 한 음운은 [+F]이면서 동시에 [-F]인 변별적 자질을 가질 수 있다.
- ⑤ 양분적인 값으로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정보 전달의 효율이 낮아진다.

31. 위 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비음성]의 A가 [+비음성]의 C 앞에서 [+비음성]의 B가 되는 자음 동화 규칙과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규칙】 A → B / \_\_\_ C

【실례】 ㄱ → ㅇ / \_\_\_ ㅁ 국물[궁물]

ㄷ → ㄴ / \_\_\_ ㅁ 만며느리[만며느리]

ㅂ → ㅁ / \_\_\_ ㄴ 읍내[읍내]

- ① ㉠에 해당하는 'ㄱ, ㄷ, ㅂ'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 ② ㉡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군.
- ③ ㉢에 해당하는 'ㄴ, ㅁ'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 ④ '읍내'에서 ㉣에 해당하는 'ㅂ'과 'ㅁ'은 공통적으로 [+양순성]을 갖는군.
- ⑤ '국물'에서 ㉤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지 못하는군.

◆ 08 수능 31~33번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음절을 많이 활용한다. ‘이야기-기상대-대리점’으로 이어 가는 끝맺이기 게임이나 ‘불고기 백반’을 ‘불백’이라고 하는 것 등은 모두 음절을 바탕으로 한다. 음절은 시에서 운을 맞추거나 랩에서 리듬을 맞출 때에 활용되기도 한다.

사람의 말소리는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음소, 음절 등으로 분절하여 인식한다. 음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이웃한 자음과 모음의 개구도(開口度, 입의 벌림 정도)를 비교하는 소쉬르의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이 방법에 따라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누면, 폐쇄음(ㄱ, ㄷ, ㅂ 등)은 0도, 마찰음(ㅅ, ㅆ, ㅎ)과 파찰음(ㅈ, ㅊ, ㅊ)은 1도, 비음(ㅁ, ㄴ, ㅇ[ŋ])은 2도, 유음(ㄹ)은 3도, 고모음(ㅣ, ㅜ, ㅡ, ㅗ)은 4도, 중모음(ㅔ, ㅖ, ㅟ, ㅢ)은 5도, 저모음(ㅓ, ㅕ)은 6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뒤쪽이 크면 ‘<’로, 뒤쪽이 작으면 ‘>’로 부등호를 매겨 나가되, 마지막 말소리는 ‘>’로 닫는다. ‘동대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말소리	ㄷ	ㅓ	ㅇ	ㅊ	ㅁ	ㅗ	ㅛ	ㅛ
개구도	0	5	2	0	6	2	4	2
부등호	<	>	>	<	>	<	>	>

이러한 부등호 배열에서 ‘><’ 모양을 갖는 두 부등호 사이가 음절 경계가 된다. 이 경계를 중심으로 음절을 나누면, ‘ㄷㅓㅇㅊㅁㅗㅛㅛ’이 ‘동-대-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 된다. 국

어에서 음절의 핵은 언제나 모음이고, 그 앞과 뒤에 자음이 하나씩 올 수도 있으므로, 국어의 음절 구조는 ‘(자음) + 모음 + (자음)’이 된다. 이러한 음절 구조에서 각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은 제한되기도 한다. 음절 초에는 ‘ㅇ[ŋ]’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 음절 말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ŋ]’ 7개의 자음밖에 올 수 없다. 그리고 음절 초 자음이 ‘ㄷ, ㅊ, ㅊ’이면 모음 ‘ㅓ, ㅕ, ㅗ, ㅛ’가 오지 못한다.

국어의 음절에는 모음이 하나씩 있으므로 모음의 수가 곧 음절의 수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모든 언어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와 같이 [n]이나 [l] 같은 자음이 음절의 핵이 되는 언어도 있기 때문이다. 음절 구조가 다른 두 언어가 접촉하면 음절의 수나 구조에 변동이 오기도 한다. 영어에서 1음절인 [sprɪŋ]이 국어에 오면 3음절의 ‘스프링’이 된다. 이런 점에서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의 구조는 해당 언어의 발음을 지배하는 기본 골격이라 할 만하다.

3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음이 변화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말소리가 음절로 나누어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음절이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국어의 음절 구조를 분석하여 위치에 따라 올 수 있는 요소가 제한됨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언어 접촉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언어에 따라 음절 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국어의 음절을 정의할 때, ㄱ~ㄹ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보 기>

음절은 개구도가 ( ㄱ ) 모음을 핵으로, 그 앞과 뒤에 개구도가 ( ㄴ ) 자음이 각각 ( ㄷ ) 까지 올 수 있는 ( ㄹ ) 의 최소 단위이다.

	ㄱ	ㄴ	ㄷ	ㄹ
①	작은	큰	하나	발음
②	작은	큰	둘	글자
③	큰	작은	하나	발음
④	큰	큰	둘	글자
⑤	큰	작은	하나	글자

33. 위 글로 보아 부등호 배열이 ‘<>>>’의 모양을 가지는 것은?

- ① 가족    ② 다수    ③ 성질    ④ 승부    ⑤ 우정

◆ 08-9평 17~19번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되는 다양한 말소리를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발음 기관이 특유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말소리를 내는 데 참여하는 신체 기관과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같다.

말소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여러 신체 기관의 협력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입 안의 여러 기관들과 코, 후두, 기관(氣管), 혀파 등이 그것들인데, 이 중 후두는 발성 작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하다. 후두의 일차적 기능은 공기 외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 인간의 후두는 갓난아이 시기에는 목구멍과 비슷한 높이에 있다가, 자라면서 서서히 하강하여 더 아래쪽에 자리 잡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영장류인 침팬지나 오랑우탄의 후두는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다는 점이다.

[A] 후두의 위치는 모음의 발음 및 분화와 직접 관계된다. 모음은 후두의 안쪽에 있는 목청이 떨리면서 소리 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 종류로 분화되는 것은 후두 위쪽의 두 공간, 즉 목안과 입안을 울림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혀의 앞부분을 생입천장에 최대한 가깝게 함으로써 입안을 최소화하고 목안을 최대화하면 ‘ㅣ’가 발음되고, 혀를 바짝 낮춤으로써 입안을 최대화하고 목안을 최소화하면 ‘ㅏ’가 발음되며,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가깝게 함으로써 두 공간의 크기를 비슷하게 하면 ‘ㅓ’가 발음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음은 전설 모음-후설 모음, 고모음-중모음-저모음 등으로 분화된다. 한편, 입술도 모음의 분화에 관여하는데, 입술을 오므리고 펴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이 나누어진다.

자음은 대개 입술과 입 안의 여러 기관의 작용에 의해 분화된다. 이 기관들은 후두를 통과해 올라온 공기의 흐름을 특정 위치에서 방해하는 작용을 통해 자음의 다양한 소릿값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ㄷ’은 혀끝을 윗잇몸 근처에 대어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터뜨리듯 엮으로써 내는 파열음이다. 여기서 ‘혀끝-윗잇몸’은 이 자음의 조음 위치가 되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듯 엮’은 조음 방법이 된다. ‘ㄱ’은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대고, ‘ㅍ’은 두 입술을 닫는다는 점에서 조음 위치는 ‘ㄷ’과 다르지만 조음 방법은 같다. 그 밖에도 짝을 이루는 아래위의 두 기관 사이를 최대한 좁히고 그 사이로 공기를 마찰시켜 내는 마찰음이 있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코안을 울려서 내는 비음과, 혀끝을 윗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내는 유음도 있다.

17.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모음은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자음을 발음할 때에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이 나타난다.
- ③ 언어마다 말소리의 수가 다른 것은 발음 기관 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 ④ ‘마찰음’이나 ‘유음’은 조음 방법상의 특징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 ⑤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ㄴ, ㄹ, ㅇ’과 같은 비음을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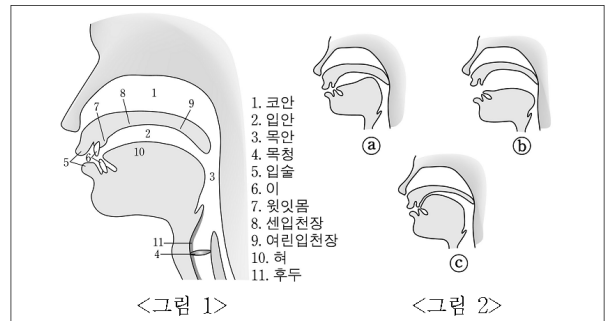
18. [A]와 <보기>의 정보를 종합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서는 다양한 모음이 발견되지 않는다.
- 침팬지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침팬지는 기본 모음인 [i], [a], [u]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했다.
- 화석 인류의 발성 기관을 재구하여 실험한 결과, 불과 몇 개의 모음만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 ① 후두가 목구멍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모음이 다양하게 분화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② 갓난아이와 침팬지가 다양한 모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이유는 같은 것이다.
- ③ 침팬지나 오랑우탄과 같은 유인원이 다양한 모음을 발성할 수 없는 것은 후천적인 요인에 기인할 것이다.
- ④ 화석 인류의 후두는 현대인에 비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 ⑤ 인간이 지금과 같은 다양한 말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9. 위 글을 읽고 ‘구비’라는 단어를 ‘ㄱ-ㅍ-ㅂ-ㅣ’로 나누어 발음한다고 할 때, 자음의 조음 위치를 <그림 1>에서, 모음을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의 모습을 <그림 2>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7-ㄷ-5-ㄱ      ② 8-ㄱ-7-ㄷ      ③ 8-ㄱ-7-ㄷ
- ④ 9-ㄱ-5-ㄷ      ⑤ 9-ㄷ-5-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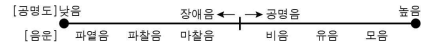
## ◆ 12년 10월 고3 30~32번

[30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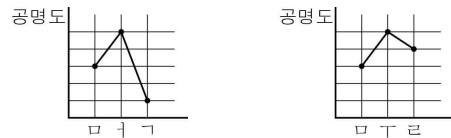
(가) 소리의 공명성은 소리가 멀리까지 울리는 성질을 의미한다. 동일한 길이, 강세, 높이로 소리를 낼 경우 공명성이 큰 말소리는 그렇지 않은 말소리보다 더 멀리까지 정확하게 들린다. 입이나 코 또는 성문(聲門)이 더 많이 열리면서 소리를 동반하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될 덜 받기 때문이다.

(나) 음운 중에는 모음이 자음에 비해 공명성이 훨씬 크다. 자음 중에는 혀 주변이나 코로 공기가 흐르며 소리가 나는 유음(ㄹ), 비음(ㅁ, ㄴ, ㅇ)이 공명성이 크다. 혀, 치아, 입술 등에 의해 공기가 막혔다 터지거나 좁은 곳을 흐르며 심한 장애를 받는 마찰음(ㅅ), 파찰음(ㅈ), 파열음(ㅂ, ㄷ, ㄱ)은 공명성이 작다. 공명성의 크기를 측정해 공명도를 나타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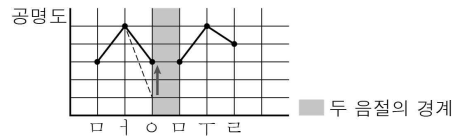
는데, 비음부터는 공명음, 나머지는 장애음이라고 한다.



(다) 우리말 음절은 기본적으로 음운들이 결합해 이뤄지기 때문에 음절 내에서 공명도 변화가 나타난다. 음운들이 각각의 공명도를 지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먹'은 세 개의 음운, 즉 초성에 비음 'ㅁ', 중성에 모음 'ㅣ', 종성에 파열음 'ㄱ'이 모여 음절을 이루므로 음절 내에서 공명도 변화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물'은 비음 'ㅁ', 모음 'ㅜ', 유음 'ㄹ'이 결합하고 있으므로 '먹'보다는 음절 내의 공명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 음절 내의 공명도 변화를 다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그런데 '먹'과 '물' 두 음절이 이어지면, 자음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선행 음절 종성에 있는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변해 [멍물]로 발음되는데, 이는 선행 음절 종성의 공명도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음운 변동을 거치며 선행 음절 종성의 공명도가 후행 음절 초성의 공명도만큼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먹물'→[멍물]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비음화'라고 하는데, 이는 공명도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음절과 음절이 만날 때에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 특정 음운이 변동되면서 음절 간의 공명도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먹물'처럼 장애음과 비음이 음절 경계에서 만나 선행 음운의 공명도가 후행 음운보다 낮은 경우에는, 후행 음운이 선행 음운보다 높은 공명도로 시작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때 선행 음운인 장애음이 비음으로 바뀌면 선행 음운의 공명도가 높아지면서 음절 간 공명도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0.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공명성과 말소리의 특징
- ② (나): 음운들의 공명성 차이
- ③ (다): 음절 내에서의 공명도 변화
- ④ (라): 공명도 변화에 따른 음운 변동의 종류
- ⑤ (마): 공명도 변화에 따른 비음화 현상의 이해

31. 위 글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파열음은 비음에 비해 공명성이 작다.
- ② 공명성은 혀나 치아 등의 발음 기관에 영향을 받는다.
- ③ 모음은 공명도가 비음보다 높으므로 공명음에 속한다.
- ④ 장애음은 공명음에 비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 ⑤ 음절 내에서 초성의 공명도는 중성의 공명도보다 높다.

32. 위 글을 참고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는 → [ ㉠ ]	문답 → [ ㉡ ]

- ① ‘문’과 ‘는’을 단독으로 발음할 때, ‘문’은 ‘는’에 비해 음절 내의 공명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 ② ‘문’과 ‘답’을 단독으로 발음할 때, ‘문’은 ‘답’에 비해 더 높은 공명도로 끝날 것이다.
- ③ 음절이 이어지면, ‘문’의 장애음과 ‘는’의 비음이, ‘문’의 비음과 ‘답’의 장애음이 음절 경계에서 만날 것이다.
- ④ ‘문는’은 ㉠에서 음절 경계에 있는 선행 음운의 공명도가 후행 음운만큼 높아질 것이다.
- ⑤ ‘문답’은 ㉡에서 음절 경계에 있는 후행 음운의 공명도가 선행 음운만큼 낮아질 것이다.